

보 도 자 료

매 수	사 진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인
		주소 : 서울 영등포구 의사당대로1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
		발신일 : 2022년 2월 24일 (목) 14:00
		담당자 : 설주완 변호사 / 010-7768-9338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 인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 발표

- 24일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인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후보 지지선언문 낭독
- 검찰 기득권을 부활하여 검찰공화국을 획책하는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는 경우 대한민국은 검찰공포사회로 전락할 수 있어
-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대출 수사 시의 선배 전관 봐주기 수사, 가족 비리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에 비추어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란 자신과 주변인에게는 휘는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
- 검찰 개혁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대한민국 위기를 극복할 식견과 능력을 갖춘, 유능하고 준비된 이재명 후보를 지지

전국 변호사 및 법학교수 1000 인이 2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이재명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선언을 발표하였다.

지지선언에는 각 지역을 대표하여 서울(차지훈), 경기(백주선), 대전·충남(이영선), 광주(강행옥), 전남(조재건), 부산·경남(김경지), 대구·경북(김무락) 등이 참석하고, 최병모 전 옷로비사건 특검, 조원철 전 의정부 고양지원장, 김하중 전 국회입법조사처장, 이용철 전 청와대 법무비서관, 민경한 전 민변부회장, 민병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정한중 전 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원장, 임선숙 전 한국여성변호사회 부회장, 윤웅중 전 육군고등군사법원장 등이 참여를 하였다.

이들은 “윤석열 후보는 국민의 염원으로 시작된 검찰개혁을 무시하고, 검찰의 기득권을 부활하고 강화하여 검찰을 통한 정치적 보복수사까지 공언하였다. 이는 그 동안 우리 국민이 피와 땀으로 쌓아 온 민주주의의 기초를 파괴하고, 과거 정치군인들의 군사독재를 연상시키는 소수 정

치검찰에 의한 검찰공화국을 획책함에 다름없다.”라고 하며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거대 권력집단이 되어 아무런 통제도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검찰의 입맛에 맞게 편의적으로 휘두름으로써 대한민국을 검찰 공포사회로 몰아 넣을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였다. 또한, “윤석열 후보의 석연치 않은 병역면제 경위, 부산저축은행 대장동 불법 대출 수사시의 선배 전관 봐주기 수사 의혹, 가족 비리에 대한 이중적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윤석열 후보가 말하는 ”공정과 정의“는 일반 국민에게는 엄격하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는 이리 저리 휘는 ”선택적 공정과 선택적 정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하였다.

이어 “부패한 기득권과 부당한 권력에 맞서 국민의 기본권을 옹호하고자 인권변호사로서의 가시 발길을 걸어 온 이재명 후보만이 이제 시동이 걸린 검찰개혁을 완수하고, 우리가 힘들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적 가치를 지키며, 검찰을 ‘국민검찰’로 만들 의지와 능력을 갖춘 지도자”라며 “유능하고 준비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이하 성명서 첨부-